

전일동향

전일대비 1.60원 하락한 1,388.0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60원 하락한 1,388.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50원 하락한 1,389.1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 환율은 방향성 재료 부재에 보험권을 횡보하다가, 국내증시 외인 매수세에 하락했다. 다만, 미국 CPI 발표 경계감 등에 환율은 상승 전환하며, 1,388.0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0.6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89.10	1393.50	1385.50	1388.00	1388.30
엔화	940.50	942.88	936.20	936.43	-	
유로화	1617.56	1620.97	1610.22	1612.15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55	-6.61	-13.94
결제환율(수입)	-1.1	-5.68	-12	-23.7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CPI 발표 경계감에...1,39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0)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8.00) 대비 2.65원 상승한 1,388.1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CPI 발표 전 경계감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발표되는 미국 7월 CPI는 전월비 0.2%, 전년비 2.8% 상승해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근원 CPI도 전월비 0.3%, 전년비 3.0% 올라 전월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7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시장 기대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15일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EU의 외교안보 관계자는 러시아가 무조건적인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어떤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에 러-우 휴전 합의 불발 가능성이 커졌으며, 유로화는 약세를 시현했다. 달러인덱스는 미국 7월 CPI 발표 경계 및 러-우 휴전 불확실성에 강세를 보이며 0.24 상승한 98.51로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달러 강세를 반영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증시 외인 투심도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중 관세 휴전 연장 소식 및 수출업체 고점매도 등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86.25 ~ 1394.7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68.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65원 ↑
	■ 美 다우지수 : 43975.09, -200.52p(-0.4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7.5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18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